

#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에 1000억 교육부, 추경 총 5053억 확보

3차 추경서 교육위 증액 요구  
2718억 대비 1718억원 줄어  
지원 방식 확정 후 본격 논의



교육부.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대학들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1000억원을 교육부가 확보했다. 교육부가 3차 추경에서 확보한 전체 규모는 5053억여 원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간접 지원하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가 확보한 예산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예산을 포함해 총 5053억원이다.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당초 국회 교육위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 긴급 지원을 위해 신청했으나 예산 당국 반대로 감액됐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원을 증액하고 일부 사

업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총 2718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소위 과정에서 1718억원을 삭감하고 대학혁신지원사업 760억원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240억원 등 10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에 따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30%에서 40%로 확대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4년제 대학에 760억원, 전문대에 240억원이 지원된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 재정여건과 대학이 특별장학금 지원을 포함해 실질적 자구 노력을 보이는지 등을 고려해 온라인 수업, 방역, 교육환경개선, 실

험·실습 기자재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확정되면 대학들의 등록금 반환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학 노후 전산망 교체와 클라우드 전환 등에는 480억원을 투입한다. 노후 전산망 교체와 클라우드 전환에 352억원을 투자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 예산 128억원을 활용해 대학이 원격교육 콘텐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세운다.

이 밖에 교원 원격교육 역량강화 지원에 33억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콘텐츠 개발 등 에듀테크 플랫폼 구축에도 39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 보조인력 및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온라인 원격 도우미 등을 통해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대학생을 위한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세종대 LINC+사업단,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세종대 LINC+사업단은 지난 1일 코로나19 감염 치료와 확산 예방을 위해 의료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전국 의료진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한서대 LINC+사업단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세종대 LINC+사업단은 캠페인에 참여해 의료진에 대한 감사와 응원의 뜻을 전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LINC+사업단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모습.

/세종대

## 명지대 '전공체험 꿈을 담다' 성료

명지대는 지난 3일 2020학년도 MJ전공체험 '꿈을 담다' 1차 행사를 학내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MJ전공체험 '꿈을 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소규모 학과 전공체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교등학과 52명 학생이 명지대 청소년 지도학과와 아동학과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학과안내 ▲학과특강 ▲학과전공체험 ▲선배와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진 기자

## 인하대 청소년 우리말지킴이 활동

인하대가 인천 지역 고교생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청소년 우리말 지킴이' 활동을 11월까지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인하대 국어문화원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우리말 지킴이로 나서 또래들에게 올바른 우리말 문화를 전하는 과정이다. /이현진 기자

## 건국대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선정

건국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이공계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항공우주 설계·인증 연구소(소장 이재우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사업을 통해 항공우주 설계·인증 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총 3단계 9년 동안 연간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와 전문화를 유도하며 우수 신진 연구 인

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번 대학중점연구소 과제에는 이재우 연구소장, 김창주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상호 스마트운행체공학과 교수, 민덕기 컴퓨터공학과 교수 등 4명과 박사급 전임연구 교수 및 연구원 8명, 연구원 20명이 참여해 향후 9년간 '스마트 도심 항공 교통(UAM)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기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현진 기자

## 교육연구정보원, 오늘부터 이틀간 '국제 웨비나'

서울시교육청소속 교육연구정보원이 6일과 7일 '포스트 코로나19: 사회와 교육의 변화, 방향, 가능성'을 주제로 국제 웨비나를 개최한다. 6일 14시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상 발제가 방송된다. 웨비나 영상 발제에는 학교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학, 에듀테크, 생태교육 등 다양

한 전문가의 발제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사회와 교육의 변화 모습을 함께 성찰해보고,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이날 발제에는 (전)보스턴 컬리지 Andy Hargreaves의 교육 변화와 학교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현진 기자

## 몸통 뺀 '곤농'스런 사고설명문



문형철 기자

국방 칼럼

설명문에 빠진 이유를 묻자 육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이 중점이 아니라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일명 '곤농(덩치만 큰 바보 육군)'이라 불리는 육군은 지난 3일 '몸통은 없고 팔다리'만 있는 설명문을 내놓았다. 그것도 지역발로 말이다.

육군이 이날 공개한 설명문은 지난 4월 23일 전남 담양군 소재 민간 골프장 직원이 인근 육군 사격장에서 날아온 소총 탄두로 인해 머리에 부상을 입은 경위를 담고 있다. 실제로 관련된 안전사고였던 만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고였는데, 육군은 지역언론에 배포했다가 뒤에 슬며시 전국 언론에 공개했다.

우리 민족을 쉽게 풀고 쉽게 식는 민족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을 바보라고 생각한듯 하다. 설명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사건의 중요한 본질이 빠져있다. 대다수 언론들이 놓친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여부가 그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육군은 사고발생 골프장이 사격장에서 1.7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해당지역의 위성사진을 들여다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행 군사시설보호법은 군사보호시설은 민간시설과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km를 이격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군 사격장은 외곽 경계선이 아닌 방벽에서 골프장까지의 최단거리가 660m 정도에 그친다. 사실상 골프장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설립된 것이다.

이번 사고 설명문과 관련해 조사를 한 곳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이 다.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여부가

이번 설명문을 보면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은 '산수'를 뜻하는 기관인 가라는 생각이 든다. 설명문에 따르면 골프장 인근 약 1.4km 떨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사격 간 발생한 유탄(조준에서 빗난 탄)이 골프장 직원의 부상원인이다.

국군의 제식소총탄인 K-100과 KM193의 유효살상거리는 각각 600m와 460m다. 유효살상거리를 넘어가면 살상력은 줄어든다. K100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4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탄이 날아가기 위해선 탄도상 '최고 비행높이(M AX ORD)'가 40m 정도선에 머문다. 그런데 해당 사격장의 방벽 뒤에는 최소해발고도 100m 이상의 능선이 자리잡고 있다.

총탄의 위력이 500그램 정도의 물체를 13미터 정도 이동시키는 60J(줄) 정도에 그친다. 수사를 수(手)로 한게 아니라 발로 한건지 궁금해지는 부분이다. 담양군 등 지역 여론은 사격장이 지역개발의 방해라는 이유로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군 스스로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를 하는 이유가 2008년 개장을 한 골프장과 관련된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게 된다. 이런 상황에 군이 내놓은 해결은 차단벽이다.

자연의 차단벽이 있는데 추가로 차단벽을 쌓겠다는 육군의 발상.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걸까 아니면 돈이 나올 탑을 쌓고 싶은 걸까. 특허법과 국가계약법도 무시하며 특검업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곤농의 속을 누가 알겠나. /captim@

## "서울시교육청 코로나 대응 만족도 높아"

학교지원 5점 만점에 4.18점 받아

서울시교육청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지원대책과 관련해 일선 학교 대상 설문 조사에서 5점 중 평균 4.18점을 받으며 호평을 얻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국공립 유·초·중·고 및 특수·각종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2451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학교지원사업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18점을 얻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5점 중 평균 4.18점으로 학교지원대책의 현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대응 학교지원사업 중 4개의 주요 분야에 대하여 실시됐으며, 분야별 만족도는 ▲자율성 확대(4.41점) ▲업무경감(4.31점) ▲방역 지원(4.18점) ▲원격수업 지원(3.94점) 순이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청 행정 전체를 과감

히 재구조화하고 지난 상반기 자율성 확대, 업무경감, 방역, 원격수업 등 학교현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자율성 확대 방안(목적사업 보류·축소·중단 등 정비, 봉사활동시간 학교장 자율 결정 등) 등이 주축을 이뤘다.

학교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수립과 평가 등 축소 운영, 목적사업 취소와 연기, 1인 수의계약 한도액 확대 순으로 효과가 높게 인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경감 분야에서는 목적사업비 방역예산 전용 또는 미집행, 보고·조사·업무메일 통한 사업 진행 지양, 공문서 사전심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조사됐다.

원격수업 지원은 온라인 수업 기자재·통신비 지원, 온라인 수업용 콘텐츠 제작 보급, 원격수업 지원 배움터 구축 순서로 효과가 높다고 인식됐다.

분야별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방역 지원에서 교육청 주관 방역물품 구매·공급, 신속한 예산지원, 방역지침 구체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진 기자